



주간 통일정세

2013-37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동향 2. 대외관계 3. 대남동향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의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동향

가. 정치

- **北김정은, 정권수립일 맞아 평양 과학지구택단지 시찰(9/9,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정권수립 65주년(9월 9일)을 맞아 새로 건설된 은하과학자 거리를 돌아봤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나라의 국력을 강화하고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하는 과학자, 기술자들을 위해서는 아낄 것이 없다"며 "당에서는 앞으로 과학교육부문 일꾼들을 위한 살림집과 휴양소를 일떠세우는(건설하는) 것을 건설분야에서 주타격 방향으로 삼으려고 한다"고 말함.

- **北, 정권수립 65주년 기념 노동적위군 열병식(9/9, 조선중앙TV)**
 - 북한은 9일 정권수립 65주년을 맞아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예비병력인 노동적위군의 대규모 열병식을 거행했다고 조선중앙TV가 실황보도함.
 - 노동적위군 복장의 박봉주 총리는 경축보고에서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위한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대혁신, 대비약의 포성을 계속 높이 올려나가야 하겠다"고 말함.
 - 박 총리는 "우리 군대와 인민은 진정으로 평화를 사랑하지만 적들이 끝 끝내 공화국을 반대하는 전쟁을 일으킨다면 천만이 총이 되고 폭탄이 되어 사회주의 조국을 철옹성 같이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함.

- **北 김정은 '9·9절' 맞아 재일동포에 축하문(9/9,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9일 정권 수립 65주년 경축 재일본조선인 중앙대회가 지난 7일 일본 도쿄 소재 조선문화회관에서 열렸다고 이 대회에서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간부들과 재일동포들에게 보낸 축하문이 낭독됐다고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축하문에서 "공화국이 부강번영하는 사회주의 강성조선으로 위용 떨치는 데는 조국을 사랑하고 헌신적으로 만들어온 총련 일꾼과 재일동포들의 애국지성도 깃들어 있다"며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애국업적을 쌓아올린 전체 총련 일꾼과 재일동포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린다"고 밝힘.

- **北김정은 부부, '9·9절' 인민내무군협주단 공연 관람(9/10,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부인 리설주가 정권 수립 65주년을 기념한 조선인민내무군협주단 공연을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전함.

- 공연에서는 노래 '김일성대원수 만만세'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 '선군의 나의 조국아' 등이 펼쳐졌고 출연자들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업적을 칭송했으며 김 제1위원장은 공연이 끝나고 나서 인민내무군협주단의 창작가와 예술인들에게 공연 준비를 잘했다며 '감사를 줬다고 통신은 전함.

● 北 신문 "자주·선군·사회주의는 백년대계 전략"(9/1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4일 "노동당의 영도 따라 자주·선군·사회주의 길로 전진하는 것"이 북한의 '백년대계 전략'이라고 주장함.
- 신문은 이날 1면 사설에서 '자주의 길'은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적 입장을 고수하고 모든 것을 자기의 결심과 판단에 따라 자기 힘과 자기 식대로 해나간다는 것"이라고 밝힘.
- 또 '선군의 길'은 "군사를 국사 중의 제일국사로 내세우고 군력 강화에 최대의 힘을 쏟으며 모든 문제를 군사선행, 선군후로의 원칙에서 풀어나간다는 것"이라고 설명함.

● 北 김정은, 리모델링 마친 평양체육관 시찰(9/15,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수개월간 진행해오던 리모델링 공사를 최근 마친 평양체육관을 돌아봤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5일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이번 평양체육관 시찰에서 리모델링 상황을 점검하며 "새로운 건설의 전성기가 펼쳐지고 있는 속에 역사가 있는 평양체육관이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개건됐다"라고 평가함.

● 北 민간인에 잇단 장성 계급장...김정은의 '별 정치'(9/15, 연합뉴스; 조선중앙TV)

- 조선중앙TV는 지난 11일 국방분야 과학자·기술자 주택단지로 보이는 '은하과학자거리' 준공식 소식을 전하면서 북한 최대 국방과학연구소인 제2자연과학원 최춘식 원장이 중장(우리의 소장)계급을 단 모습을 내보냈다고 15일 연합뉴스가 전함.
- 최춘식뿐 아니라 현 북한 군수공업의 3인방인 박도춘 노동당 군수담당 비서, 주규창 당 기계공업부장, 백세봉 제2경제(군수경제)위원장도 김정은 체제에서 군 계급장을 달았다고 뉴스는 전함.



■ 김정은동향

- 9/9, 김정은 黨 제1비서, 새로 건설된 '은하과학자거리' 시찰 및 건설자들에게 '감사' 전달(9.9,중통·중방·평방)
- 박봉주, 최룡해, 김인식, 최휘, 박태성, 홍영철, 마원춘 등 동행
- 9/9, 노동적위군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 9.9 김정은 참가하 김일성광장에서 진행(9.9,중통·중방·평방)
- 김영남, 박봉주(경축보고), 최룡해, 장성택, 리영길, 장정남, 김경희, 김기남, 최태복, 박도춘, 김영춘, 최영림, 양형섭, 리용무, 강석주, 오극렬, 현철해, 김원홍, 김양건, 김영일, 김평해, 곽범기, 주규창, 김창섭, 문경덕, 로두철, 최부일, 리병삼, 조연준, 태종수, 김영대 등과 권순휘(총련중앙상임위 고문), 최은복(재중조선인총연합회 의장)
- 9/10, 김정은 黨 제1비서와 리설주, 조선인민내무군협주단 공연 관람(9.10,중통·중방)
- 박봉주, 최룡해, 장성택, 리영길, 김경희, 김기남, 최부일 등과 駐北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부부, 무관부부, 외국 손님들이 함께 관람
- 9/11, 김정은 黨 제1비서, 9.11 시리아 대통령 생일 48회 축전 발송(9.11,중통)
- 9/13, 김정은 黨 제1비서, 청천강 계단식발전소 건설을 적극 지원한 '평양산원 의사 김세준' 등에게 감사 전달(9.13,중방)
- 9/15, 김정은 黨 제1비서, 새로 개건된 평양체육관 시찰(9.15,중통·중·평방)
- 장성택, 리재일, 마원춘 동행 및 강철성(대외건설지도국 국장), 김성남(대외건설지도국 당위원회 책임비서) 등 현지 영접
- 김정은, 룡라인민유원지 유희장에 새로 건설한 입체울동영화관과 전자오락관 시찰(9.15,중통·중·평방) - 장성택, 리재일, 박춘홍, 마원춘 동행
- 9/15, 김정은-리설주 부부, 9.15 '2013 아시안컵 및 아시아클럽역도 선수권대회' 4일차 63kg급·69kg급 경기 관람(9.16,중통·중방)
- 박봉주, 최룡해, 장성택, 장정남, 김기남, 리영수 등 함께 관람
- 北, '13 아시안컵 및 아시아클럽역도선수권대회 4일차 경기결과 보도(9.16,중통)
- '北 선수들이 연일 우승을 하고 있다'며 '엄윤철'의 세계신기록 갱신 소식 보도(9.16,중통)
- 北, 제8차 9월10일 전국 무도선수권대회 15일 경기성적 소개(9.15,중통)

나. 군사

- 北 장거리 로켓 발사 '영웅' 최춘식은 인민군 중장(9/11, 연합뉴스; 조선중앙TV)
 - 지난해 12월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의 주역인 최춘식 제2자연과학원장이 인민군 중장(우리의 소장)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11일 조



선중앙TV를 인용-보도함.

- 조선중앙TV가 11일 북한 과학자 주택단지인 '은하과학자거리' 준공식 소식을 전하면서 내보낸 현장 영상에서 중장 계급장을 단 최춘식의 모습이 포착됨.

● **북한, 병력·노후 재래식무기 감축키로(9/14, 도쿄신문)**

-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되, 국방비 절감 차원에서 병력 수와 노후한 재래식 무기를 줄이기로 했다고 도쿄신문이 14일 북한군 출신 탈북자를 인용해 보도함.
- 신문에 따르면 인민군 장교 출신인 장세울 북한인민해방전선 대표는 북한내 소식통들에게 확인했다며 북한이 지난달 당 중앙 군사위원회 확대 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밝힘.

다. 사회·문화

● **北 씨름판도 '세대교체'...20대 신예 전국대회 패권(9/9, 조선중앙통신; 조선신보)**

-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3~6일 평양 능라도 씨름경기장에서 열린 제11차 대항소상 전국민족씨름경기 '비교씨름'에서 황해남도팀의 손광철(23)이 우승을 차지했다고 9일 보도함.
- 몸무게 88kg의 손광철은 결승전에서 강원도팀의 김금철(21)을 2 대 0으로 가볍게 꺾었으며 조선신보는 "관록과 경험이 승패에 큰 작용을 하는 전국 규모의 씨름경기에서 20대가 대항소를 타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함.

● **北 '9·9절' 공연·무도회로 '잔치 분위기'(9/9,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9일 냉면으로 유명한 평양 옥류관에서 정권수립 기념 연회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박봉주 내각 총리를 비롯한 당·정·군 주요 인사, 해외동포, 북한 주재 외교관, 국제기구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고 보도함.
-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연설을 통해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조선노동당의 영도를 받들어 공화국을 영원한 태양의 나라, 김일성·김정일 동지의 국가로 빛내며 이 땅 위에 온 세계가 우러러보는 천하 제일강국, 인민의 낙원을 일으켜 세울 것"이라고 말함.

● **'北 스포츠에도 부정행위(?)'...적발팀 6개월 출전정지(9/11, 조선중앙통신)**

- 북한 체육성의 체육경기규율심의회 위원회 대변인은 남자축구팀인 노동적위군 '선봉팀'의 부정행위가 확인됐다고 이 팀의 국내외 대회 참가자격을 6개월간 박탈한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일 보도함.
- 대변인은 선봉팀의 부정행위를 "건전한 체육정신과 도덕기풍에 어긋나는 불미스러운 현상"이라고 지적하고 앞으로 체육경기에서 부정선수와의



소속팀을 엄격히 처벌키로 했다고 밝힘.

- **北 은하과학자주택단지 준공식...입주 시작(9/11,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과학자·기술자 전용 주택단지로 새로 조성한 평양 교외의 '은하 과학자거리'가 11일 준공돼 입주를 시작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박 총리는 준공사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최첨단 과학연구 구성과로 백두산 대국의 존엄과 국력을 만방에 과시한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주는 사랑의 선물"이라며 최첨단 실력·실적으로 보답해야 한다고 강조함.

- **北, 새 노래 '조국찬가' 띄우기...애국심 고취 의도(9/1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2일 애국심을 강조하는 '조국찬가'라는 새 노래에 대한 각 계층의 찬사를 소개하며 애국심을 고취함.
 -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 이 노래가 온 나라를 흥분으로 끓어번지게 한다며 "공화국 국민 된 긍지로 가슴 부풀게 하고 있으며 조국을 위해 심장을 바쳐갈 맹세를 가다듬게 한다"고 강조함.

- **北 '14년 만의 국제대회' 역도선수권 성공에 총력(9/12,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개막식이 열린 12일 아시안컵 역도선수권대회와 아시아클럽 대회가 이번에 처음으로 통합돼 열리게 됐다며 이번 대회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고 "여러 나라 선수들과 감독, 전문가들은 대회 준비사업이 높은 수준에서 진행된 데 대해 만족을 표시하고 있다"고 강조함.
 - 김광덕 조선역기협회 서기장은 아시아역도연맹과 협력해 이번 대회가 "세계 여러 나라의 역기 기술발전에 이바지하는 의의 있는 경기 무대로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힘.

- **北, 5세 미만 사망률 194개국 중 77위(9/14, 미국의소리(VOA))**
 - 북한의 5세 미만 어린이 사망률이 전 세계 194개국 중 77위라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유엔아동기금(UNICEF) 보고서를 인용해 14일 보도함.
 - UNICEF는 전날 발표한 '아동생존 보고서'에서 작년 한 해 동안 사망한 (1세 이상) 5세 미만 북한 어린이는 모두 1만 명으로 집계됐으며 사망률은 1천 명당 29명이라고 밝혔으며, 이는 전 세계 평균 사망률인 1천 명당 48명보다는 낮은 수준임.

- **北, 23~26일 평양 가을철국제상품전람회(9/14,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제9차 평양 가을철 국제상품전람회를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3대혁명전시관에서 연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4일 전함.
 - 통신은 전람회에 중국, 러시아, 독일, 말레이시아, 몽골, 폴란드 등 13개 나라와 지역의 무역회사가 참가하며 CNC 공작기계를 비롯해 전기·전자·건설·화학·경공업 분야의 제품과 식료품, 의료기구 및 의



약품, 각종 운수수단이 출품될 예정이라고 소개함.

■ 기타 (대내 사회·문화)

- '北 정권 수립(9.9) 65돌 경축 공훈국가합창단 공연 '번영하라 조국 이어', 9.10 박봉주(내각총리) 참가下 인민극장에서 진행(9.10, 중통·중방)
- 2013년 청년·성인급 아시아컵 및 구락부 역기선수권대회, 9.12 평양 류경 정주영체육관에서 개막(9.12, 중통·평방)

2. 대외관계

가. 일반

- **시진핑·푸틴, 北 김정은에 정권수립 65주년 축전(9/9, 조선중앙통신)**
 -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북한의 정권 수립 65주년을 맞아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함.
 - 시 주석은 축전에서 "우리는 조선인민이 앞으로 나라의 경제 및 사회발전에서 새롭고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기를 충심으로 충원한다"며 북중 친선은 양국의 귀중한 재부라고 밝힘.
 -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도 이날 김 제1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내 "두 나라가 앞으로 쌍무관계를 여러 분야에서 발전시킴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이바지하게 될 것을 확신한다"고 밝힘.
- **로드먼 "김정은-리설주 딸 이름은 '김주애'"(9/9, 가디언(The Guardian))**
 - 최근 방북한 테니스 로드먼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부인인 리설주 사이의 딸 이름은 '김주애'라고 말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9일 보도함.
 - 로드먼은 인터뷰에서 "나는 그들의 딸 주애(Ju-ae)를 안았고 (김 위원장의 부인인) 리씨(MS.Lee)와도 이야기했다"면서 "김 위원장은 좋은 아버지였고, 아름다운 가족이 있었다"고 밝힘.
- **로드먼 "북한, 올림픽 농구대표팀 훈련 요청"(9/9, AP통신)**
 - 최근 두 번째 북한 방문을 마치고 미국에 돌아온 미국 프로농구(NBA) 출신의 테니스 로드먼은 9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2016년 올림픽 농구 대표팀을 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고 AP통신이 9일 보도함.
 - 로드먼은 "내년 1월 북한에서 농구 시범경기 두 게임을 개최할 계획이고



시범 경기에 출전할 선수 선발을 돕기 위해 12월 북한에 다시 갈 예정" 이라면서 "시범 경기에 NBA에서 함께 활동했던 스킷 피펜이나 칼 말론 같은 선수들이 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함.

- **北주체사상 다룬 다큐영화 내달 美영화제 상영(9/10, 미국의소리(VOA))**
 - 미국인 영화감독 롭 몬츠가 관광객으로 북한에 들어가 몰래 찍은 영상들로 만든 다큐멘터리 영화 '주체스트롱(Juche Strong)'이 다음달 19일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와 같은달 25일 열리는 북한인권영화제에 잇달아 선반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0일 보도함.
 - 몬츠 감독은 북한이 경제난과 고립 속에서도 버티는 데는 주체사상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이 영화를 통해 "미국인들이 북한을 비이성적이고 기괴한 나라로만 인식하는 데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싶었다"고 말함.
- **중국서 北김정은 담화 번역 출간(9/10, 중국신문사)**
 - 10일 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 등에 따르면 단둥룡산인쇄장은 지난 3일 김 제1위원장의 담화인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의 요구에 맞게 국토관리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가져올 데 대하여'를 단행본 형태로 번역 출간했다고 보도함.
 - 북한에서 '노작(勞作)'으로 불리는 이 담화는 김 제1위원장이 작년 4월 당, 국가경제기관, 근로단체 책임일꾼들을 모아 놓고 발표한 것으로 평양시를 화려하고 웅장한 세계적인 도시로 꾸미는 등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해나가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중국 난핑, 북한 무산 철광석 수입 회복세(9/10, 연변일보)**
 - 아시아 최대 노천 철광인 북한 무산철광과 인접한 중국 지린성 허룽(和龍)시 난핑(南坪)진을 통한 북한산 철광석 수입이 올해 들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연변일보가 10일 보도함.
 - 신문에 따르면, 중국에서 철광석을 수입하는 육로국경세관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난핑통상구는 올해 1~8월 북한산 철광석 통관물량이 38만6천에 달해 지난해보다 두배가량 증가함.
- **北 나진~러 하산 철도 수일 내 개통(9/11,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 나진항과 러시아의 하산을 연결하는 철도가 수일 내 개통될 예정이라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러시아의 소리' 방송을 인용해 11일 보도함.
 - 러시아 외교부 관리는 러시아의 소리 방송에 러시아 철도회사가 공사를 맡아온 나진~하산 구간이 곧 재개통된다고 북-러 국경철도 개통식이 며칠 내에 열릴 계획이라고 밝힘.
- **北김정은 '화학무기 의혹' 시리아 대통령에 생일 축전(9/11,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11일 아사드 대통령에게 보낸 축전에서



"생일 48돌을 맞는 당신에게 열렬한 축하와 따뜻한 인사를 보낸다"며 "우리 인민은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시리아 정부와 인민의 정의의 투쟁에 변함없는 지지와 연대성을 보내고 있다"라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오랜 역사적 전통을 가진 우리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 관계가 앞으로 더욱 강화발전되리라고 확신한다"며 "언제나 건강하여 책임적인 사업에서 새로운 성과를 거둘 것"을 축원함.

● **美 의원, 국무부에 재미한인 이산가족 상봉 촉구 서한(9/12, 자유아시아방송(RFA))**

- 미국의 마크 커크(공화·일리노이) 연방상원의원이 최근 미국 정부와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에 한인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2일 보도함.
- 커크 의원은 남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한 직후인 지난달 23일(현지시간)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와 피터 마우러 ICRC 총재에게 편지를 보내 9월에 진행될 남북 이산가족 상봉에 미국에 사는 한인 이산가족도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촉구함.

● **유엔, 북한에 92만 달러 긴급 수해지원(9/13, 미국의소리(VOA))**

-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CERF)이 북한 수해에 92만 달러(약 10억원)를 긴급 지원키로 결정했으며 이 자금은 세계보건기구(WHO)가 북한 수재민에게 의약품과 깨끗한 식수를 제공하는 데 쓰일 예정이라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3일 보도함.

● **불가리아 올해 대북 수출품 90%가 주류(9/13, 자유아시아방송(RFA))**

- 불가리아의 올해 대북 수출품목 중 대부분이 와인, 위스키 등 양주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3일 전함.
- 방송은 코트라(KOTRA) 소피아무역관이 불가리아 통계청 자료를 인용해 작성한 보고서를 인용해 올해 1~4월 불가리아의 대북 수출액은 2만 2천301달러로 집계됐으며 이 중 전기 주방용품(1천336달러), 해바라기 씨(641달러)를 제외하면 위스키(7천848달러), 와인(7천146달러), 보드카(5천882달러) 등으로 수출품의 90% 이상을 양주가 차지한다고 밝힘.

● **싱가포르 유람선, 손님 없어 금강산 관광사업 포기(9/13, 미국의소리(VOA))**

-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13일 일본 NHK 방송을 인용해 북한의 나선과 금강산을 오갔던 유람선 '황성호'가 중국인 관광객의 규모가 작아 지난달 말 사업을 포기하고 이달 초 싱가포르로 철수했다고 보도함.



- **北, 美·英 지원받아 백두산 화산 관측 시작(9/13, 미국의소리(VOA))**
 - 북한이 처음으로 미국, 영국 등 서방 과학자들과 함께 백두산에서 화산·지진 관측을 시작했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13일 보도함.
 - 제임스 해몬드 영국 임페리얼칼리지 교수는 VOA와의 통화에서 영국과 미국 과학자 3명과 독일 비영리단체 관계자 1명 등 4명의 방북단이 백두산에 지진계를 설치하기 위해 지난달 북한을 다녀왔다고 밝힘.
 - 해몬드 교수는 이번 프로젝트에 북한 측 과학자 30여명이 참여했다며 앞으로 북한이 지진계로 측정한 데이터를 3~4개월마다 전달하고 이를 토대로 북한과 공동 보고서를 작성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함.
- **북한, 2020올림픽 개최지 IOC투표서 도쿄지지(9/15, 지지(時事)통신)**
 - 북한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의 2020년 올림픽 개최지 투표에서 도쿄에 표를 던졌다고 15일 지지(時事)통신이 전함.
 - 통신에 따르면 한 북한관계 소식통은 지난 7일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IOC 총회에서 북한의 장웅 IOC 위원이 도쿄에 투표했으며 복수의 아프리카 국가도 북한의 주선으로 도쿄를 지지했다고 말함.

■ 기타 (대외 일반)

- 중국 '습근평'(주석)·'리극강'(국무원 총리)·'장덕강'(손인대 상무총 위원장), 9.8 김정은·김영남·박봉주에게 '北 정권 수립' 65돌 축전(9.9, 중통·중방·평방)
- 일본의 2012년 군사비 지출(세계 5위)을 거론하며 '일본의 군사비 증강책동은 자위대 무력을 최신식 군사장비로 무장시켜 옛 제국의 꿈을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이것은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엄중한 범죄행위'라고 비난(9.10, 평방)
-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중조우호협회, 9.6 베이징에서 지재룡 駐中 北 대사 등 초대下 '北 정권 수립' 65돌 연회 개최(9.11, 중통·중방)

나. 6자회담(북핵)

- **美 "北 강한 비핵화 의지 보이기전 6자회담 불가"(9/9, 연합뉴스)**
 - 한·중·일 순방에 나선 미국 6자회담 수석대표인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9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북한이 이미 이행을 약속했던 (비핵화) 조치들을 취하는 데 있어 훨씬 더 강한 (북한의) 의지를 우리가 볼 때까지 6자회담 복귀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견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9일 보도함.
 - 데이비스 특별대표는 "문제는 북한은 최근 수주, 수개월간 여러 차례에 걸쳐 과거 노력에서 퇴보하는 행동과 선언을 하는 데 몰두해왔다는 점"이라고 지적하면서 "이것은 지금 6자회담이 열려도 얼마나 생산적일지



상상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밝힘.

- **한미 6자회담 대표 "北 비핵화의지 보여야 회담 재개"(9/10, 연합뉴스)**
 - 북한의 대화 공세와 남북관계 개선을 배경으로 중국이 대화 재개 드라이브를 거는 가운데 한미 양국이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을 통해 북한의 태도변화가 우선이라는 원칙을 다시 확인했다고 연합뉴스가 10일 보도함.
 - 조 본부장은 "6자회담의 중심 목표는 비핵화"라면서 "그 사이 북한이 핵국가로 선언하고 핵실험을 했기에 6자회담을 재개하려면 비핵화 회담이라는 것을 (북한이) 분명히 하고 6자회담이 비핵화를 위한 성과가 있을 것이란 판단이있어야 가능하다"고 밝힘.
 - 데이비스 대표도 "북한은 그들의 의무와 약속, 유엔 결의안을 이행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회담을 재개하려면)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6자 회담의 핵심 사안에 진실하다는 어느 정도의 신호를 우리가 봐야 한다"고 밝힘.
- **"北변화 우선" vs "6자 재개"...美·中 견해차 확인(9/11, 연합뉴스)**
 - 글린 데이비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는 11일 베이징 중국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 최근의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대북 정책 방향을 협의했지만 6자회담 재개 방안을 놓고 양국 사이의 뚜렷한 견해차를 확인하는데 그쳤다고 연합뉴스가 11일 보도함.
 - 우 특별대표는 지난달 자신의 방북 결과를 설명하면서 2008년 12월 마지막 협의를 끝으로 중단된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할 필요성이 있다는 견해를 피력한 것으로 전해짐.
- **북한, 실험용 원자로 8월 하순 재가동 가능성(9/12, 연합뉴스)**
 - 북한이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 생산에 사용해온 영변 실험용 원자로 복구작업을 완료하고 이미 재가동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미국 내 연구소가 11일(현지시간)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12일 보도함.
 -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산하 한미연구소는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를 통해 지난달 31일 영변 주변을 촬영한 상업용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원전 주변 터빈 건물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관측했다고 밝히면서 연기의 색깔과 양을 볼 때 원자로가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거나 가동에 인접한 상황이라는 점을 암시한다고 분석함.
- **北원자로 끔찍한 상태...재가동은 재앙(9/12, 인테르팍스통신)**
 - 러시아 외교소식통은 "영변에서 무슨 일인가가 추진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그것도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 일어난 것은 분명하다"면서 "몇몇 징후들로 볼 때 재가동 방향으로 일이 추진된 것처럼 보이지만 원자로가 재가동됐다는 정보는 아직 없다"고 말했다고 러시아 인테르팍스통



신이 12일 보도함.

- 소식통은 "우리의 기본적 우려는 가능한 기술적 재앙과 연관돼 있다"며 "영변 원자로는 지난 세기인 1950년대에 세워진 것으로 형편없는 상태" 라면서 "원자로가 한반도에 재앙은 아니라 하더라도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함.

● 유엔 "영변 원자로 재가동은 안보리 결의 위반"(9/13, 연합뉴스; 이타르타스 통신)

- 유엔은 13일(현지시간) 북한의 영변 원자로를 재가동했다면 이는 명백한 유엔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파르한 하크 유엔 대변인은 이날 영변 원자로 재가동 의혹과 관련 질문을 받고 이 같이 답했다고 이타르타스 통신이 보도함.

3. 대남동향

가. 정치·군사

● 유엔사, 북한군 시신 판문점 통해 북측에 인계(9/11, 연합뉴스)

-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는 지난 7월 31일 평화의 댐 일대에서 발견된 북한군 시신 1구를 11일 오전 10시 판문점을 통해 북측에 인계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11일 보도함.

● 北 "대화·협상 통한 통일이 우리의 원칙"(9/1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3일 '평화수호는 우리 공화국의 일관된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조국통일을 무력에 의거하거나 전쟁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대화와 협상의 방법으로 평화적으로 이룩하지는 것이 조국통일에 관한 우리의 원칙적인 입장"이라며 "평화적 방법으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는 것은 조국통일의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도"라고 밝힘.
- 신문은 "지금 우리 겨레는 모처럼 마련된 북남관계 개선의 분위기가 계속 고조돼 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가 보장되고 나라의 평화적 통일이 이룩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우리는 평화와 평화통일에 대한 온 겨레의 염원에 따라 평화수호의 가치를 높이 들고 북남관계를 개선하며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앞으로도 의미 있는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함.

● 北신문 "북남대결시대에 영원히 중지부 짚어야"

- 노동신문은 14일 '대결관념을 버려야 한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대결관념은 "북남관계 개선을 방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시대착오적'이고 '낡은 시대의 오물'이라며 "북남대결의 시대에 영원히 중지부를 짚어야 한다"고 역설함.



- 또한 "대결시대의 타성이 있어 거부감이 있을 수 있고 친근감보다 외면하려는 생각이 앞설 수도 있다"며 "하지만 대결을 끝장내야 한다는 의미만 있다면 그것은 문제로 되지 않는다"고 주장함.

나. 경제·사회·문화

- **개성공단 16일부터 재가동...5개월 만에 완전 정상화(9/11, 연합뉴스)**
 - 남북은 10일부터 11일 새벽까지 열린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오는 16일부터 시운전을 거쳐 개성공단 재가동에 들어가기로 하는 내용을 합의하고 공동발표문을 발표했다고 연합뉴스가 11일 보도함.
 - 이와 함께 남북은 다음 달 중에 개성공단에서 남측 지역의 외국기업과 외국 상공인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기로 함.
- **北, 개성공단 '재가동 합의' 신속 보도(9/11,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1일 "개성공업지구 북남공동위원회 제2차 회의가 10일과 11일 개성공업지구에서 진행됐다"며 "16일부터 공업지구 기업들이 시운전을 거쳐 재가동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보도함.
 - 통신은 "회의에서 북과 남은 1차 공동위원회와 분과위원회들에서 협의된 문제들을 토의하고 해당한 합의서들을 채택했다"고 덧붙임.
- **장웅 北 IOC 위원 "남한의 IOC 위원 도전 지지"(9/12, 미국의소리(VOA))**
 -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고 있는 IOC 총회에 참석 중인 장 위원은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WTF) 총재가 새 IOC 위원이 되는 것에 대해 "지지한다. 우리 민족이 IOC에 많이 들어가면 좋은 것"이라고 말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2일 보도함.
 - 장 위원은 조 총재가 IOC 후보가 되는 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고 IOC에 도전하면 적극 밀겠다고 덧붙임.
-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결과 교환(종합2보)(9/13, 연합뉴스)**
 - 남북 적십자가 13일 오전 판문점에서 추석 이산가족 상봉 후보자 가족의 생사확인 결과가 담긴 회보서를 교환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대한적십자사(한적)는 이날 북측이 남측 상봉 후보자 250명 가운데 167명의 북측 가족 생사 확인 결과를 전해왔다고 밝혔으나 나머지 83명의 가족은 생사확인이 불가능함.
- **北, 南인원 개성공단 통행 편의 제고키로(종합)(9/13, 연합뉴스)**
 - 남북은 13일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산하 2개 분과위원회 회의를 열어 공동위 2차회의 당시 합의되지 못한 사안에 대한 후속 논의를 벌였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남북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출입체류 분과위원회와 통행·통신·통관(3통)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했으며 3통



분과위에서 북측은 앞으로 지정시간대에 통행하지 못하는 남측 인원은 북측 통행검사소에 통지한다면 벌금 부과 없이 다른 시간대에 통행하는 것을 보장키로 함.

- **북한 역도대회서 한국 1·2위…처음 애국가 올려(종합2보)(9/14, 연합뉴스)**
 - 한국 역도 선수단의 김우식(19·수원시청)과 이영균(19·고양시청)은 14일 평양 류경 정주영 체육관에서 열린 2013 아시안컵 및 아시아 클럽 역도선수권대회 남자 주니어 85kg급에 출전해 각각 우승과 준우승을 차지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北 TV, 평양 역도대회 南선수 경기 등 녹화중계(종합)(9/15, 조선중앙 TV)**
 - 조선중앙TV는 15일 오전 11시경부터 15분에 걸쳐 전날 평양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열린 아시아 클럽역도선수권대회의 남자 주니어 85kg급 등 일부 경기와 시상식 장면을 녹화 중계함.
 - TV는 녹화중계에 남한 선수들의 경기와 수상장면도 내보냄.
- **개성공단 내일부터 재가동…공동위 3차회의도 개최(9/15, 연합뉴스)**
 - 개성공단이 16일 입주기업들의 시운전을 시작으로 개성공단 사태 발생 이후 166일 만에 재가동에 들어간다고 연합뉴스가 15일 전함.
 - 정부 당국자는 "입주기업 123곳 중에 50~60% 정도가 첫날 재가동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힘.

■ 기타 (대남)

-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제2차 회의', 9.10-11 개성공단에서 진행 및 '9.16부터 개성공단 기업들 시운전 거쳐 재가동 합의' 간략 보도(9.11, 중통·평방·중방)
- '국정원,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혐의 수사' 등 관련 '내란음모사건의 간판 밑에 벌이는 반공화국 소동은 심각한 통치위기에 직면할 때 마다 내돌곤 하는 상투적 수법으로서 내외 여론을 탄 데로 돌리기 위한 광대극'이라고 지속 주장(9.12, 평방)

● 북한연구센터 제공



문 이후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음.

- <러셀 미 차관보 "6자회담 목표는 북 핵 폐기">(9/11, 미국의소리)
 - 일본을 방문 중인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9일 도쿄 미국 대사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 문제의 핵심은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위협이라며 6자회담의 목표는 북핵 폐기라는 사실을 거듭 강조했다.
 - 특히,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게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당사국들의 일치된 입장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는 한편, 북한의 비핵화 준수를 앞당기는 평화적인 절차를 밟는 게 6자회담 당사국들의 공동 목표라는 점을 재확인했음.
- <"北변화 우선" vs "6자 재개"...美·中 견해차 확인>(9/11, 연합뉴스)
 - 미국과 중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가 11일 베이징에서 회동했지만 6자회담 재개 방안을 놓고 양국 사이의 뚜렷한 견해차를 확인하는데 그쳤음.
 - 우 특별대표는 지난달 자신의 방북 결과를 설명하면서 2008년 12월 마지막 협의를 끝으로 중단된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할 필요성이 있다는 견해를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음.
 - 그러나 데이비스 특별대표는 10일 서울에서 밝힌 바와 같이 북한이 비핵화 사전 조치를 이행해야만 6자회담이 다시 열릴 수 있다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재차 확인했음.
 - 제임스 밀러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은 10일 베이징에서 열린 제14차 연례 미·중 방위협의회에서 비핵화를 위한 신뢰할 수 있고 진정성 있는 협상에 북한이 복귀할 수 있도록 중국이 압박을 유지하고 강화할 것을 촉구했음.
- <"북한, 실험용 원자로 8월 하순 재가동 가능성">(종합)(9/12, 연합뉴스)
 -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산하 한미연구소는 11일 위성사진 분석 결과 원전 주변 터빈 건물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관측했다며, 북한이 영변 실험용 원자로 복구작업을 완료하고 이미 재가동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음.
 - 연구소는 연기의 색깔과 양을 볼 때 원자로가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거나 가동에 인접한 상황이라는 점을 암시한다고 분석하면서도, 하얀 연기 관측은 일시적이기 때문에 시험운전인지 아니면 본격적인 가동인지는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음.
 - 앞서 이 연구소는 지난 6월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북한이 이르면 1~2개월 후에 영변 핵시설을 가동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음.
- <미국 "北 영변원자로 재가동은 유엔 안보리 결의위반">(9/13, 연합뉴스)
 - 마리 하프 국무부 부대변인은 12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영변 원자로를 재가동한 것으로 보인다는 일부 싱크탱크들의 보고서와 관련해 "만일 사실이라면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



히면서, 이는 "북한이 2005년 9·19 공동성명을 통한 약속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음.

- 하프 부대변인은 그러나 재가동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질문에는 "정보사항에 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언급하지 않는다"며 답변하지 않았음.

● <中 "영변원자로 재가동설 주시">(9/13, 연합뉴스)

- 홍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이미 영변 원자로를 재가동했을 수 있다는 보도에 대해 "우리는 유관 보도 내용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음.
- 이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안정은 중국의 일관된 주장으로, 중국은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유관 각국이 동북아의 장기적인 평화안정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를 바라며 이는 각국 공동이익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나. 미·북 관계

● <“美, 1시간 내 北핵시설 타격 첨단무기 개발 박차”>(9/9, 연합뉴스)

- 8일(현지시간) 외교·군사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카네기국제평화재단(CEIP)의 제임스 액튼 연구원은 이달 초 발간한 보고서에서 미국이 전 세계 모든 지역의 목표물을 1시간 내에 타격할 수 있는 첨단무기 개발을 진행 중이며, 북한 핵시설이 주요 표적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
- 보고서는 아직 구체적인 도입·배치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최근 지정학적 상황으로 인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의회 내에서 '재래식 전세계 신속타격(CPGS)' 도입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특히 북한과 이란, 그리고 중국 등이 그 근거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 보고서는 그러나 CPGS에 탑재된 탄두가 핵인지 재래식 무기인지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러시아와 중국이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폴 "북한, 미군에 가스 사용 땀 엄청난 응징 직면">(9/9, 연합뉴스)

- 미국 공화당 대권 주자로 시리아에 대한 군사 개입에 반대해온 랜드 폴(켄터키) 상원의원은 8일(현지시간) 북한이 미군을 상대로 화학무기를 사용했다가는 엄청난 응징에 직면하리라는 것을 북한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폴 의원은 "북한은 미군을 상대로 화학무기나 재래식 무기를 사용할 경우 미국의 엄청난 대응에 직면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고 알아야 한다고 본다. 시리아와 북한은 완전히 다른 상황"이라고 말했음.

● <미 IAEA 대사 "북 핵무장 용인 불가">(9/11, 자유아시아방송)

- 미국의 조셉 맥머너스(Joseph Macmanus) 국제원자력기구(IAEA) 주



- 재 대사는 11일 오스트리아 빈 IAEA 정기 이사회에서 미국의 대북정책의 핵심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는 것이라며, 미국은 결코 북한을 핵 무장국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맥머너스 대사는 대북대화에 앞서 미국은 반드시 북한의 명확한 비핵화 의지를 봐야 한다면서 북한 측과의 '대화를 위한 대화'에는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 대사는 또 북한의 핵 능력 개발은 국제 비확산 체제, 또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적하면서, 북한 당국은 즉각 잘못된 방향의 행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음.

다. 중·북 관계

- <“중국 난핑, 북한 무산 철광석 수입 회복세”>(9/10, 연합뉴스)
 - 아시아 최대 노천 철광인 북한 무산철광과 인접한 중국 지린성 허룽시 난핑진을 통한 북한산 철광석 수입이 올해 들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중국 언론이 10일 보도했음.
 - 북한의 항구를 이용한 동해 항로 개척에 적극적인 중국은 올해 초 난핑까지 연결한 자국 철도를 장기적으로 무산을 거쳐 청진항까지 연장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음.
 - 한편, 무산철광은 한 때 연간 최대 생산량이 600만에 달했지만 채굴과 선광에 필요한 각종 설비가 심하게 노후화하면서 생산량이 급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 일·북 관계

- <北 송일호 대사 "도쿄 올림픽, 성공리에 치뤄지길">(9/10, 교도통신)
 - 북한 송일호 조일국교정상화교섭 담당대사는 2020년 올림픽의 도쿄 개최가 결정된 것에 대해 "스포츠는 정치와 관계없는 친선의 장이다. 송고한 스포츠 이념에 근거해 성공리에 치뤄지기를 바란다"고 긍정적으로 말했다.
 - 그러나 송 대사는 "북조선 국적 소유자의 입국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일본에서 개최되는 스포츠 국제 경기에 즈음해 일본을 방문한 북조선 선수단에 대한 일본 측의 차별적 대응이 있었다"고 비난하면서 "올림픽과 조일관계를 직결시켜선 안 된다"고 말했다.

마. 러·북 관계

- <“北 나진~러 하산 철도 수일 내 개통”>(러시아 방송)<(9/11, 연합뉴스)
 - 북한 나진항과 러시아의 하산을 연결하는 철도가 수일 내 개통될 예정이라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러시아의 소리' 방송을 인용해 11일 전했다.
 - 앞서 2011년 10월 나진~하산 구간 시범열차가 운행됐으며, 작년 초에는 북한의 철도 관련 전문가 33명이 러시아의 철도 전문기관에서 연수받는



등 북한과 러시아의 철도 분야 협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러시아 "北, 원자로 재가동 하면 대참사">(9/12, 교도통신)

- 북한이 영변 시험용 흑연감속로를 재가동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과 관련해, 러시아 외교소식통은 12일 "원자로는 꽤 오래돼 심각한 상태다"고 지적, 실제로 재가동했다면 "조선(한)반도에 엄청난 대참사,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음.
- 외교소식통은 러시아가 현 단계에서는 원자로를 재가동했다는 직접적인 정보를 입수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일련의 간접정보로부터 재가동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음.

바. 기 타

● <오스트리아 "북 WMD 확산 주시">(9/10, 자유아시아방송)

- 오스트리아의 연방 국가보안·반테러국은 10일 발간한 2012년 활동 보고서에서 지난해 북한과 이란이 관련된 대량살상무기 확산이 의심되는 구체적인 사건들이 있었다고 밝히면서, 대량살상무기 확산 측면에서 북한과 이란의 움직임을 특히 주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국가보안·반테러국 측은 또 대량살상무기 제조에도 사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dual-use) 기술을 다루는 오스트리아 기업들이 북한이나 이란 당국을 대신한 위장회사(front companies)와 거래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한-미, 북한 핵 대응 맞춤형 억제전략 완성>(9/9, 미국의소리)

- 한국 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미-한 양국이 지난 10여 개월 동안 공동으로 연구한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한 '맞춤형 억제전략'이 최근 완성됐다고 밝혔음.
- 이 문서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해 확장 억제력을 한국에 제공할 것이라고 한 미국의 선언적인 공약을 공식문서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실효성을 담보하게 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당국자는 설명했다.
- 이 맞춤형 억제전략에는 북한의 핵 사용 징후부터 실제 핵을 사용했을 때 양국이 실행에 옮길 정치, 외교, 군사적 대응 방안까지 포괄적으로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나. 한·중 관계

- <“韓中 FTA 개방수준, 국내기업 이익 확대에 미흡”>(9/9, 연합뉴스)
 - 한국과 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1단계 협상에서 합의된 개방수준이 농수산물 등 피해 품목의 보호에는 충분하지만 국내 기업의 이익 확보에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왔음.
 - 한국무역협회는 9일 보고서를 통해 피해가 예상되는 농수산물과 생활용품의 비중이 전체의 9.6%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개방제외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잡았다고 지적했음.
 - 보고서는 또 실제 관세철폐로 인한 우리기업이 기대할 수 있는 혜택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수출이 유망하지만 고관세에 묶여 있는 최종 소비재를 발굴해 개방 품목에 포함하는 것이 향후 중요한 협상 과제가 됐다고 언급했음.

다. 한·일 관계

- <“한국과 관계 개선해야”...아베 정권에 채근 이어져>(9/12, 연합뉴스)
 - 일본 내부에서 아베 신조 정권을 상대로 한국, 중국 등 주변국과 관계를 개선하라는 주문이 이어지고 있음.
 - 연립 정권을 구성한 공명당 대표는 윌리엄 번즈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면담 중에 한일 관계에 대한 우려가 담긴 질문이 나오자 “한국과 일본이 올해 가을에 정상회담을 개최할 수 있도록 공명당이 전력을 다하고 싶다”고 말했음.
 -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총무회장대행도 11일 아베총리가 올림픽 유치를 위해 노력한 것만큼이라도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음.
 - 한편,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정상 회담이나 외교장관 회담 개최와 관련해 “(회담개최) 조건을 열거하기보다는 (한일관계) 상황이 왜 이렇게 됐는가를 되묻고 싶다”며 일본 정치인들의 성찰을 촉구하였음.
- <“이달 하순 유엔총회때 韓日외교 회담 조율”>(9/12, 연합뉴스)
 - 교도통신은 미국 뉴욕에서 23~24일 열리는 유엔총회에 맞춰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의 외교장관 회담 개최를 위해 한국·일본 정부가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복수의 외교 관계자를 인용해 12일 보도했음.
 - 통신은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간 회담에 필요한 여건 조성이 외교장관 간 대화의 초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으나,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결정된 것은 없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음.



라. 미·중 관계

- <中 양제츠 "신형 대국관계는 상호 핵심이익 존중">(9/12, 연합뉴스)
 -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은 중국과 미국간 '신형 대국 관계'는 상대방의 사회제도와 발전경로, 핵심이익을 존중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난 10일 미국의 보수성향 잡지인 '내셔널 인터리스트'에 기고한 글을 통해 주장했다.
 - 양 국무위원은 또 중국과 미국의 신형 대국 관계에 대한 세 가지 함축된 의미로 '충돌하지 않고 대립하지 않는 것,' '상호존중,' '윈-윈(Win-Win)할 수 있는 협력'을 언급했다.

마. 미·일 관계

- <번즈 美국무 장관 "센카쿠 문제, 일본 입장 지지">(9/12, 연합뉴스)
 - 윌리엄 번즈 미국 국무부 장관이 11일(현지시간)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대립에 관해 "일본의 입장을 기본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다.
 - 이는 센카쿠 문제에 관해 중국, 일본 어느 쪽의 편도 들지 않겠다는 미 정부의 기존 입장과 배치되는 것으로, 중국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 한편, 매케인 상원의원의 발언 문제 당시 쟈 사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센카쿠의 궁극적인 영유권 문제에서 어느 편도 들지 않는다. 미국 정부의 입장은 그대로다"고 강조한 바 있음.

바. 미·러 관계

- <"러시아, 이란 미사일 공급재개로 미국 농락" <CSM>>(9/12, 연합뉴스)
 - 시리아 사태에 중재안을 내놓으면서 모처럼 미국과 공조 움직임을 보인 러시아가 이번에는 이란과의 협력을 강화할 움직임을 보여 미국의 외교 전략을 농락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 미국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CSM)는 시리아 문제를 두고 접점을 찾으려는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이란에 방공 미사일 공급을 재개하겠다는 러시아 측 입장이 전해지면서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고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 한편,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IC)에서 러시아·유라시아 전문가로 활동한 피오나 힐은 러시아가 이란에 방공 미사일을 '판매하겠다' 또는 '판매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미국과 러시아 관계에서 지렛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백악관, 푸틴 뉴욕타임스 기고문에 '발끈'>(9/13, 연합뉴스)
 -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12일(현지시간) 정레브리핑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 뉴욕타임스(NYT) 기고문을 통해 최근 시리아 사태와 관련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를 강한 어조로 비판한 데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했음.

- 그는 특히 "러시아는 지난달 21일 발생한 (시리아) 화학무기 공격이 반군의 짓이라는 입장을 유일하게 주장하고 있다"면서 러시아측 주장의 신뢰성에 의문을 표했음.
- 그는 또 시리아 화학무기 폐기 중재안에 대해 "이는 러시아 지도부의 결정 덕도 있지만 미국과 (오바마) 대통령의 결정이기도 하다"면서 공동성과임을 주장했다.

사. 중·일 관계

- <중국, 센카쿠 사태 1년 맞춰 대규모 군사훈련>(9/10, 연합뉴스)
 - 일본의 센카쿠(중국어명: 댜오위다오) 국유화 조치 1주년을 맞아 중일 간 긴장이 다시 고조되는 민감한 시기에 중국이 대규모 군사훈련에 돌입했음.
 - 중국 인민해방군은 10일 '사명행동(使命行動) 2013' 훈련을 시작했다고 대만 타블로이드 신문 왕보가 전했다. 이 대만 매체는 이 훈련이 센카쿠 문제로 갈등을 빚는 일본을 향한 시위의 의미도 있다고 분석했음.
- <中日해경선박 14척 센카쿠서 '해상 추격전(종합)'>(9/10, 연합뉴스)
 - 일본의 센카쿠(중국어명: 댜오위다오) 열도 국유화 1주년을 하루 앞둔 10일 중국 해경선과 일본의 순시선이 센카쿠 영해에서 추격전을 벌이며 대치했음.
 - 중국국가해양국과 중국중앙(CC) TV에 따르면 중국 해경국 소속 7척의 해경선단이 이날 오전 9시 18분 센카쿠 해역에 진입했음.
 - 중국 해경선 소속 공무원은 추격전 과정에서 일본 선박을 향해 "우리는 지금 중국 관할의 해역을 순항 중"이라며 댜오위다오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해상 성명도 발표하였음.
- <일본 "센카쿠에 영토문제없다는 입장 불변">(9/11, 연합뉴스)
 -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센카쿠(중국어명: 댜오위다오) 열도 국유화 1주년인 11일 "센카쿠에 영토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은 앞으로도 전적으로 동일할 것"이라고 밝혔음.
 - 다만 스가 장관은 "중국과 일본은 세계 2위, 3위의 경제대국"이라며 "개별 문제가 있더라도 항상 전략적 대화의 창은 열려있다"고 밝혔음.
- <일 아베 총리 "주권에 대한 도발 외면하지 않을 것">(9/12, 미국의소리)
 -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중-일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아베 총리는 12일 자위대 간부와의 회동에서 "주권에 대한 잇따른 도발과 일본을 둘러싼 안전보장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고 말했음.
 - 아베총리는 이어 "미-일 안보체제의 역지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한층 더 군사적인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 한편, 같은 날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센카쿠



열도에 대한 실효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공무원을 상주시키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고 밝혔다.

- <중외교부 "일본, 여전히 반성 안 해...강렬한 불만">(9/12, 연합뉴스)
 - 일본의 센카쿠(중국어명: 댜오위다오) 국유화 1주년을 맞은 지난 11일 중국 외교부 홍레이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일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중국의 정상적인 해상활동에 이르러러한 말을 하고 있다"며 "강렬한 불만을 표한다"고 밝혔다.
 - 홍 대변인은 이어 "일본은 확실하게 현실 역사를 대면하고, 잘못을 바로 잡고, 중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동을 중단해 양국(관계를 저해하는) 장애요인을 없애는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음.

아. 중·러 관계

- <中, 러시아서 수호이-35S 내년 도입할 듯>(9/12, 연합뉴스)
 - 중국과 러시아가 내년 최첨단 전투기 Su(수호이)-35S 거래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크다고 인민일보 인터넷판이 9일 러시아 통신사 리아노보스티를 인용, 보도했음.
 - 러시아 국방수출공사 고위 관계자는 리아노보스티에 "(중국과) 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올해까지는 서명이 어렵다"며 "내년에 서명이 이뤄질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밝혔다.
 - 그러나 Su-35S 거래가 예상보다 늦춰지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가격과 기술 이전 등 조건을 놓고 치열한 물밑 다툼을 벌이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음.
- <中·러, 중앙아시아 경제주도권 잡기 신경전 착수>(9/12, 연합뉴스)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앙아시아 순방에서 '실크로드 경제권' 창설을 제안하면서 같은 지역에서 '유라시아 경제권(Eurasian Economic Union)'을 추진해온 러시아의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중국은 러시아를 의식해 실크로드 경제권 발표시기를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 다음으로 미루는 등 신중함을 보였지만, G20 정상회의 참석 후 7일 카자흐스탄을 방문하며 중앙아시아를 상대로 실크로드 경제권을 제안했음.
 - 아직 러시아는 시 주석이 제안한 실크로드 경제권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외교소식통은 양국정상이 13일 키르기스스탄의 비슈케크에서 열리는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서 만날 예정이어서 관련 언급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자. 일·러 관계

- <알러, 첫 2+2 개최...사이버공격 대책 중심의제될 듯>(9/11, 교도통신)
 - 일본 정부는 11일 러시아와 처음으로 11월에 개최하는 외무방위각료급 협



의(2+2)에서, 사이버공격 대책을 양국의 새로운 협력 분야로 제안하는 방향으로 검토에 들어갔음.

- 이는 테러 및 해적 대책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중심 의제의 하나로 하려는 생각이며, 북방영토 교섭 진전을 목표로 안전보장 면에서도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를 추진하려는 아베 정권 전략의 일환으로 보임.
- 한편, 2+2회담에 앞서 양국은 사이버공격에 관한 고위급협의를 13일 모스크바에서 열 예정이며, 협의 결과에 따라 2+2에서 제안할 구체적 내용을 정리함.

차. 기 타

● <일본, 인도와 LNG수입국 협의체 추진>(9/9, 월스트리트저널)

-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경제산업상과 베라파 몰리 인도 석유가스부 장관은 9일 도쿄에서 아시아의 LNG가격이 비합리적으로 형성되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LNG수입국을 포괄하는 가스 수입국협의체를 만들기로 합의했음.
- 저널은 아시아 시장에서의 가스공급 계약이 유가연동에 따른 장기계약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대외비로 계약이 체결되고 있다는 점에서 신뢰할만한 가격지수를 만들 수 없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음.
- 한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가스생산국 포럼에서 가스 수급안정의 차원에서 유가 연동방식의 장기계약 체제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기득권의 유지를 주장했음.

● <시진핑, 중앙아시아 '통큰행보'...49조원 투자약속>(9/10, 연합뉴스)

- 중앙아시아 순방에 나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우즈베키스탄에 150억 달러, 카자흐스탄에 300억 달러 등 총 450억 달러(약 49조원)의 투자약속을 하며 통큰 행보를 이어가고 있음.
- 이 밖에도 중국석유천연가스집단(CNPC) 대표단이 카자흐의 '카샤간 유전' 개발사업 지분 50억 달러치를 사들이고 투르크멘과 2020년까지 연간 천연가스 거래량을 650억m³까지 확대기로 하는 등 수행한 경제대표단이 체결한 투자금액만도 수십억 달러에 이룸.
- 일각에서는 시 주석의 구상에 대해 중앙아시아권을 자국의 영향력 안에 끌어들이며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 맞서고 동유럽 등지에 진출할 교두보를 만들겠다는 포석으로 풀이했음.

● <남중국해 각국행동선언'이행 위한 고위급회의 곧 개최>(9/11, 인민망)

- 중국 외교부 홍레이 대변인은 10일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중국과 아세안 국가는 협상을 통해 '남중국해 각국 행동선언' 제6차 고위급 회의와 제9차 공동업무분과회의를 9월 14일과 15일에 장쑤성 쑤저우에서 개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 홍 대변인은 이번 회의를 통해 각 당사국들은 '선언'의 본격적인 이행과



해상협력 강화를 놓고 의견을 나눌 예정이며 '선언' 이행을 바탕으로 한 '남중국해 행동준칙'에 대한 협상도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 <미국 '北공격 대비' 동부 미사일기지 후보 5곳 선정>(9/13, 연합뉴스)
 - 미국 국방부가 12일(현지시간) 북한이나 이란 등의 대륙 간 탄도 미사일(ICBM) 공격에 대비해 동부 지역에 신설 검토 중인 미사일 방어(MD) 기지 후보지로 뉴욕주 포트드럼, 버몬트주 캠프 이든앨런 훈련소 등 5곳을 선정했다고 의회에 통보했음.
 - 이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자체 검토 시안이 아닌 의회의 요구에 의한 결과물로,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현실화 여부는 불투명함.
 - 한편, 국방부, 백악관 등 오바마 행정부와 대다수 민주당 의원은 북한 등의 가시적 위협이 없는데다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국방 예산을 감축해야 하는 상황에서 제3의 MD 기지 설치 불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제 3의 MD기지 현실화 가능성은 의문임.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